



## 유로존 3/4분기 경기침체 진입

이정환 선임연구원

■ 3/4분기 유로존 경제는 재정위기 확산으로 2/4분기에 이어 전분기대비 마이너스 성장함으로써 더블딥<sup>1)</sup>에 빠짐.

- 유로존의 전분기대비 실질 GDP 증가율은 2/4분기 -0.2%를 기록한데 이어 3/4분기에도 -0.1%를 기록함.
- 3/4분기 독일과 프랑스 경제는 전분기대비 각각 0.2% 성장하였으나, 유로존 전체의 경기침체를 피하기에는 역부족이었음.
- 재정위기 확산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플러스 성장세를 보였던 네덜란드, 오스트리아 등도 3/4분기에는 마이너스 성장함.
  - 3/4분기 네덜란드의 실질 GDP는 전분기대비 1.1% 감소하였으며, 오스트리아의 실질 GDP는 0.1% 감소함.

■ 재정위기 국가들은 3/4분기에도 회복 조짐을 보이지 못하였으며, 이들 국가들의 경기침체는 장기화되는 것으로 나타남.

- 이탈리아와 스페인은 이미 1년째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있으며, 그리스 등은 경제성장률 하락이 가속화됨.
  - 이탈리아는 3/4분기 실질 GDP가 전분기대비 0.2% 감소하여 5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하였고, 스페인은 3/4분기 실질 GDP가 전분기대비 0.3% 감소하여 4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함.
  - 포르투갈은 3/4분기 실질 GDP가 전분기대비 0.8% 감소하여 8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하였고, 그리스의 3/4분기 실질 GDP는 전년동기대비 7.3% 감소하여 2008년 4/4분기부터 현재까지 2010년 1/4분기를 제외하고 마이너스 성장함.

1) 경제가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하는 경기침체 이후 회복세를 보이다가 다시 경기침체에 빠질 경우 더블딥에 빠진 것으로 정의됨. 유로경제는 2009년 경기침체를 겪었고 2012년 2/4~3/4분기 다시 경기침체에 진입함.

■ EC 및 경제예측기관들은 유로존 경제가 당분간 반등할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전망함.

- 유럽위원회(EC)는 유로존의 2012년 실질 GDP 증가율은  $-0.4\%$ 를 기록하고 2013년에는  $0.1\%$ 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함.
- 전문가들은 유로존의 경기침체는 2012년 4/4분기까지 연장될 것이며 2013년에도 경기침체나 다름없는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함.
  - 이는 유럽 재정위기가 2009년 후반에 그리스에서 시작된 이래 주변부 위기가 핵심국가들로 확산되면서 유로존 경제회복의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임.
  - 4/4분기에는 독일과 프랑스마저 실질 GDP 증가율이 마이너스로 전환될 수 있다고 예상함.

(Eurostat, 11/16, Bloomberg, 11/17)